

부·모의 심리적 통제 및 과잉기대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기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Mediating Effect of Narciss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ternal ·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Over-Expectation, and Adolescent Aggression

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윤 언 정
교 수 김 경 연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Student : Eon Jung Yoon

Professor : Kyong Yeon Kim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결과분석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mediating effects of narciss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ternal ·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over-expectation, and adolescent aggression. This study's participants were 678 boys and girls selected from second and third graders at middle schools in Busan.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gender differences in p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fathers' over-expectation, mothers' over-expectation, and adolescents' overt aggression. Second, boys' overt aggression indirectly affected fathers' psychological control and mothers' over-expectation through boys' narcissism. Third, girls' relational aggression indirectly affected fathers' psychological control and mothers' over-expectation through girls' narcissism and directly affected fathers' psychological control. Finally, girls' overt relational aggression indirectly affected fathers' and mothers' over-expectation through girls' narcissism.

주제어(Key Words) : 심리적 통제(psychological control), 과잉기대(over-expectation), 자기애(narcissism), 공격성(aggression)

Corresponding Author : Eon Jung Yoon, Dep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30 Jangjeon-dong, Geumjeon-gu, Busan, 609-735, Korea Tel: +82-51-510-2761 Fax: +82-51-513-7976 E-mail: pollux0601@hanmail.net

* 본 논문은 2009년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I. 서론

공격성은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 정신적 고통 혹은 상해를 주는 행동을 의미하며, 신체적, 언어적 공격을 포함하는 외현적 공격성 및 상대를 고의적으로 소외시키는 행동인 관계적 공격성으로 구분된다(Crick & Grotpeter, 1995). 공격성은 타인은 물론 자신에게도 육체적 심리적 손상을 입혀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야기하게 되며(길주현, 2008) 연령 증가와 함께 강화되는 경향이 있고 지속적이어서(Tremblay, 2000) 공격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공격성은 개인의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발달하므로(김지현, 박경자, 2006) 공격성의 발달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청소년의 환경적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개별화를 이루고 자율성의 욕구가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Juang, Lerner, von Eye, & McKinney, 1999) 부모의 심리적 통제 및 과도한 기대는 청소년의 자율성 욕구를 방해하여 공격성 등 부적응 행동으로 나타난다(김은영, 1996; 신현균, 임지영, 2003; Barber, 1996).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생각과 느낌을 억압하고 무조건적 복종을 요구하는 강압적인 양육행동이다(Perry, Kusel, & Perry, 1988).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심리적 통제를 받을 때 좌절을 경험하며, 이러한 좌절은 가족 외 환경에서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김민정, 도현심, 2001). 경험적 연구들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공격성을 유발하고 지속시키는 강력한 요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류진영, 1999; 박영미, 1996; 이숙, 이춘아, 1998). 특히 학령기 초기에서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한 Fukunishi, Nakagawa와 Nakamura(1996)의 종단연구에서도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공격성, 비행 등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제시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부모의 과잉기대란 자녀의 능력에 비해 과도한 기대수준을 갖는 것으로 자녀 양육 시 지나치게 경쟁 및 성공을 강조하게 된다. 청소년기는 학업성취, 진학의 문제 등이 강조되는 시기로 부모의 높은 교육열이 자녀에 대한 과잉기대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선행연구(소미강, 2008; 손석한 외 2001; 신현균, 임지영, 2003)들은 부모의 과잉기대가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공격성으로 드러나게 한다고 제시한다.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으로는 자기애적 성향이 제시된다. 자기애는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 과장된 자각 또는 부풀려진 자기상을 의미하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자신에 대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청소년기의 중요한 심리적 요소이다(이세연, 2008). 자기애가 높은 경우 성공, 권력에 대한 공상을 하며 자신이 특별하다는

특권의식, 우월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타인으로부터 과도한 칭찬을 기대하게 된다. 즉 과장된 자기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인의 부정적 평가 또는 불쾌한 자극에 공격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자기애가 높은 청소년이 분노를 공격적으로 표출하는 성향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이를 입증한다(길주현, 2008; Bushman & Baumeister, 1998; Kernis & Sun, 1994; Papps & O'Carroll, 1998).

청소년의 자기애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는 설명이 Kernberg(1975)와 Millon(1982)에 의해 제기되었다. Kernberg(1975)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이해와 공감을 받지 못하면 정서적 결핍을 느끼게 되어 자기애적인 사람으로 성장한다고 보았다. 자녀는 부모의 보호와 양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부모가 가치를 두는 자신의 측면을 찾는 것이 자녀의 유일한 방어책이 되어, 과장된 자기를 발달시키게 된다는 것이다(홍영미, 2007 재인용). 자녀의 독립적인 생각과 느낌을 억압하고 무조건적 복종을 요구하는 부모의 심리적통제가 자기애를 유발하는 변인이라는 경험적 연구들은(김계령, 1997; 김은영, 1996; 마혜정, 2004) Kernberg(1975)의 주장을 지지한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 외에 과잉기대도 청소년의 자기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제시되고 있다. Millon(1982)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비현실적인 기대는 자녀의 자기가치감과 특권의식을 지나치게 부풀리고, 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과장된 자기상을 나타나게 한다고 하였다. 다수의 경험적인 연구들(김계령, 1997; 김은영, 1996; 마혜정, 2004; 홍영미, 2007)은 부모의 과잉기대가 자기애를 유발하는 변인이라고 보고함으로써 이들 학자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 과잉기대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직접적 영향도 미치지 않지만 청소년의 자기애에 매개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과모형의 근거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도출된 인과모형을 분석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공격성과 관련 변인과의 관계는 성별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수의 연구결과에서 외현적 공격성 및 관계적 공격성 수준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점(김지현, 박경자, 2006) 및 외현적 공격성 및 관계적 공격성의 예측변인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결과(이홍, 2009)는 청소년의 공격성 유형에 따른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자기애 간의 인과적 관련성이 성별에 따라 다를 것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끼치는 환경적 요인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 과잉기대의 영향을 아버지, 어머니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외현적·관

계적 공격성과 부모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연구의 편의상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지 않고 살펴보기나(김지현, 박경자, 2006), 둘 중 한 대상만을 선정한 연구들(박성연, 2002)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오늘날은 자녀양육이 부부공동의 것이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와 상호작용을 하는 양상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자녀에게 각각 다른 사회화 경험을 제공한다고 밝혀졌다(Rex & Sarah, 1993 재인용).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공격성 유형에 따라 아버지 및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과잉기대의 영향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청소년의 외현적·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중요한 역할을 밝혀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먼저 탐색적 수준에서 성별에 따른 연구변인들의 차이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아버지 및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및 과잉기대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청소년의 자기애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청소년의 성별과 공격성 유형에 따라 파악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구성된 가설적 인과모형의 분석을 통해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행동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며, 공격성을 나타내는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격행동 및 집단 따돌림 등에 대한 중재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부·모의 심리적 통제, 과잉기대, 청소년의 자기애 및 공격성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과잉기대 및 청소년의 자기애의 인과적 관련성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어떠한가?
- 2-1. 외현적 공격성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인과적 관련성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어떠한가?
- 2-2.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인과적 관련성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부산시 소재 5개 중학교로부터 임의 추출된 남녀 청소년 687명이다. 표본추출과정은 부산시의 5개 구에서 각 구별 1개씩의 중학교를 임의추출한 후 각 학교의 2,3학

년 학급 중 담임교사의 협조가 가능한 학급 전체청소년으로 선정하였다. 최초 선정된 표본은 735명이었으나 자료편집과정을 통해 응답회피, 응답불성실 사례를 제외하고 총 687명을 최종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측정도구

1) 청소년의 공격성

청소년의 공격성은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였는데 외현적 공격성은 서수균과 권석만(2002)의 척도 중 신체적 공격성 9문항과 언어적 공격성 5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서수균과 권석만(2002)의 척도는 Buss와 Perry의 척도를 번안·타당화 과정을 거쳐 한국판 공격성척도로 제작된 것으로 문항내용은 '나는 보통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치고받고 싸우는 편이다', '나는 다른 사람과 의견 충돌이 잦다' 등 신체적 수단으로 해를 입히거나, 언어적인 모욕감을 주는 정도를 묻는 것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까지 5점의 평정범주를 가진다. 점수범위는 14~7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외현적 공격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척도 신뢰도계수 chronbach's α 값은 .85였다.

관계적 공격성은 이춘아(2001)의 척도 중 관계적 공격성 7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춘아(2001)의 척도는 Perry, Kusel과 Perry(1988)와 Crick과 Grotpeter(1995)의 척도를 번안·타당화 과정을 거쳐 한국판 공격성척도로 제작된 것으로 문항내용은 '나는 그룹을 짤 때 어떤 아이를 끼워주지 않는다' 등으로,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거나 고의적으로 소외시키는 정도를 묻는 것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까지 5점의 평정범주를 가진다. 점수범위는 7~35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척도 신뢰도계수 chronbach's α 는 .87였다.

2)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김혜영(1999)의 척도 중 심리적 통제 11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김혜영(1999)의 척도는 Barber(1996)와 김지신(1999)의 척도를 재구성하여 제작한 것으로 문항내용은 '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면 못마땅하게 여기신다' 등 자녀의 생각과 느낌을 억압하고 무조건적 복종을 요구하는 행동의 정도를 묻는 것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까지 5점의 평정범주를 가진다. 점수범위는 4~2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척도 신뢰도계수 chronbach's α 값은 부는 .87, 모는 .89로 나타났다.

3) 부모의 과잉기대

부모의 과잉기대는 허모연(2000)의 척도 중 과잉기대 6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허모연(2000)의 척도는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모양육척도와 정신 병리에 결정적인 요인들을 검토하여, 문항을 추출 및 제작한 것으로 문항내용은 '나에게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 하신다' 등 자녀의 능력에 비해 과도한 기대수준을 갖는 행동의 정도를 묻는 것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까지 5점의 평정범주를 가진다. 점수범위는 6~3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과잉기대가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척도 신뢰도계수 chronbach's α 값은 부는 .77, 모는 .75로 나타났다.

4) 청소년의 자기에

청소년의 자기에에는 정남운(2001)의 척도 32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정남운(2001)의 척도는 Raskin과 Hall(1979, 1981)의 척도를 번안, 한국적 실정에 맞게 공통요인 분석을 거쳐 자기애적 성격검사로 제작된 것으로 문항내용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유능하다' 등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 과장된 지각을 갖는 정도를 묻는 것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까지 5점의 평정범주를 가진다. 점수범위는 32~16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에가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척도 신뢰도계수 chronbach's α 값은 .85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표출된 학교를 방문하여 수업시간 및 자습시간 동안 담임교사 주관 하에 응답하게 하여 수집하였

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4.0 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먼저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사항인 성별, 학년, 부모연령, 부모학력, 월평균 소득, 부모의 직업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h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Ⅲ. 결과분석

1.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연구변인의 차이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연구변인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평균차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변인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 본 결과 <표 1>와 같이 나타났다.

<표 1>의 결과에 따르면 부의 심리적 통제($t = 2.96, p < .01$), 부의 과잉기대($t = 4.61, p < .001$), 모의 과잉기대($t = 4.27, p < .001$) 및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t = 4.79, p < .001$)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즉 아버지는 여아보다 남아를 더 심리적으로 통제하고 과잉기대를 하며, 어머니는 여아보다 남아를 더 과잉 기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아보다 남아가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을 포함하는 외현적 공격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인과적 관련성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인과적 관련성을 알아보기에 앞서 연구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2>와 <표 3>에 제시되어있다.

<표 2>와 <표 3>에 의하면 종속변인인 청소년의 공격성과

<표 1>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연구변인의 평균차 검증

(N = 678)

변인	집단구분(N)	M(SD)	t값
부의 심리적 통제	남아(N = 298)	9.15(3.60)	2.96**
	여아(N = 372)	8.30(3.84)	
모의 심리적 통제	남아(N = 294)	8.42(3.46)	1.42
	여아(N = 370)	8.03(3.51)	
부의 과잉기대	남아(N = 296)	16.76(5.37)	4.61***
	여아(N = 372)	14.72(5.93)	
모의 과잉기대	남아(N = 296)	17.44(5.98)	4.27***
	여아(N = 364)	15.40(6.21)	
청소년의 자기에	남아(N = 278)	90.16(19.32)	-.32
	여아(N = 345)	90.67(20.29)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	남아(N = 298)	38.58(8.00)	4.79***
	여아(N = 366)	35.49(8.46)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	남아(N = 297)	14.50(5.36)	1.27
	여아(N = 371)	14.00(4.92)	

** $p < .01$ *** $p < .001$

〈표 2〉 남아의 공격성에 대한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N = 303)

	1	2	3	4	5	6	7
1. 부의 심리적 통제	1.00						
2. 모의 심리적 통제	.54***	1.00					
3. 부의 과잉기대	.44***	.24***	1.00				
4. 모의 과잉기대	.35***	.39***	.61***	1.00			
5. 청소년의 자기애	.14*	.19**	.23***	.21**	1.00		
6. 외현적 공격성	.21***	.21***	.15**	.18**	.40***	1.00	
7. 관계적 공격성	.22***	.31***	.15*	.16**	.27***	.39***	1.00

* $p < .05$ ** $p < .01$ *** $p < .001$

〈표 3〉 여아의 공격성에 대한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N = 375)

	1	2	3	4	5	6	7
1. 부의 심리적 통제	1.00						
2. 모의 심리적 통제	.46***	1.00					
3. 부의 과잉기대	.46***	.30***	1.00				
4. 모의 과잉기대	.41***	.52***	.66***	1.00			
5. 청소년의 자기애	.15**	.17**	.28***	.30***	1.00		
6. 외현적 공격성	.25***	.25***	.28***	.29***	.40***	1.00	
7. 관계적 공격성	.20***	.22***	.23***	.25***	.21***	.41***	1.00

* $p < .05$ ** $p < .01$ *** $p < .001$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은 남아의 경우 .15($p < .05$)에서 .36($p < .001$)의 범위에 있었고, 여아의 경우 .20($p < .001$)에서 .38($p < .001$)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애와 독립변인 간의 상관은 남아의 경우 .14($p < .05$)에서 .23($p < .001$)의 범위에 있었고, 여아의 경우 .15($p < .01$)에서 .30($p < .001$)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은 남아의 경우 .24($p < .001$)에서 .54($p < .001$)의 범위에 있었고, 여아의 경우 .30($p < .001$)에서 .66($p < .001$)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었다.

1)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인과적 관련성

〈표 2〉와 〈표 3〉의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인과적 관련성을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검토하였다.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을 종속변인으로 두고 관련 변인들을 순차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구성한 인과모형을 〈그림 1〉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표 4〉과 〈그림 1〉에 따르면 남아의 외현적 공격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남아의 자기애였고($\beta = .34, p < .001$), 부의 과잉기대 및 모의 심리적 통제는 남아의 자기애에 매개되어 간접적 영향(각 $\beta = .19, p < .05$; $\beta = .16, p < .05$)만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변인은 남아의 외현적 공

격성 변량의 18%를 설명하였다. 〈표 4〉과 〈그림 2〉에 따르면 여아의 외현적 공격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여아의 자기애였고($\beta = .34, p < .001$), 부의 과잉기대 및 모의 과잉기대는 여아의 자기애에 매개되어 간접적 영향(각 $\beta = .18, p < .05$; $\beta = .18, p < .05$)만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변인은 여아의 외현적 공격성 발달의 22%를 설명하였다.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인과효과 분석에 따르면 남아의 외현적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기애이며, 모의 심리적 통제, 부의 과잉기대는 남아의 외현적 공격성에 간접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외현적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기애이며, 부의 과잉기대, 모의 과잉기대는 여아의 외현적 공격성에 간접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인과적 관련성

〈표 2〉와 〈표 3〉의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인과적 관련성을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검토하였다.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을 종속변인으로 두고 관련 변인들을 순차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구성한 인과모형을 〈그림 3〉과 〈그림 4〉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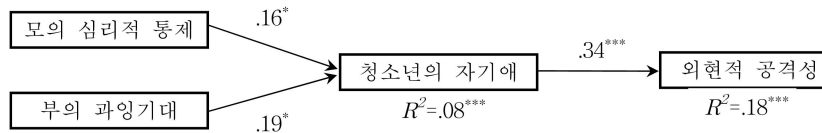
〈표 5〉과 〈그림 3〉에 따르면, 모의 심리적 통제는 남아의

〈표 4〉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다중회귀분석 및 인과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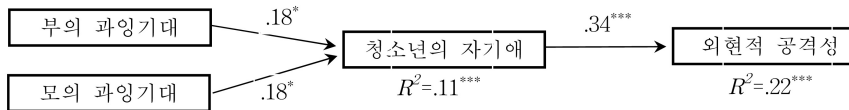
(N = 678)

집단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인과효과			R ²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남아	자기애	부의 심리적 통제	.04	-	-	-	.08***
		모의 심리적 통제	.16*	.16	-	.16	
		부의 과잉기대	.19*	.19	-	.19	
		모의 과잉기대	.05	-	-	-	
	외현적 공격성	부의 심리적 통제	.11	-	-	-	.18***
		모의 심리적 통제	.05	-	.05	.05	
		부의 과잉기대	.02	-	.06	.06	
		모의 과잉기대	.05	-	-	-	
		자기애	.34***	.34	-	.34	
여아	자기애	부의 심리적 통제	.02	-	-	-	.11***
		모의 심리적 통제	.02	-	-	-	
		부의 과잉기대	.18*	.18	-	.18	
		모의 과잉기대	.18*	.18	-	.18	
	외현적 공격성	부의 심리적 통제	.11	-	-	-	.22***
		모의 심리적 통제	.10	-	-	-	
		부의 과잉기대	.06	-	.06	.06	
		모의 과잉기대	.06	-	.06	.06	
		자기애	.34***	.34	-	.34	

*p < .05 ***p < .001



〈그림 1〉 남아의 외현적 공격성에 대한 관련변인들 간의 인과적 관련성



〈그림 2〉 여아의 외현적 공격성에 대한 관련변인들 간의 인과적 관련성

관계적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beta = .23, p < .01$)을 미칠 뿐 아니라 자기애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beta = .16, p < .05$)을 미쳤고, 부의 과잉기대는 청소년의 자기애에 매개되어 간접적 영향($\beta = .19, p < .05$)만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변인은 남아의 관계적 공격성 변량의 14%를 설명하였다. 〈표 5〉과 〈그림 4〉에 따르면, 여아의 관계적 공격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여아의 자기애였고($\beta = .14, p < .05$) 부의 과잉기대와 모의 과잉기대는 여아의 자기애에 매개되어 간접적 영향(각 $\beta = .18, p < .05; \beta = .18, p < .05$)만을 미쳤다. 세 변인은 여아의 관계적 공격성 변량의 9%를 설명하였다.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인과효과 분석에 따르면 남아의 관계적 공격성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모의 심리적 통제, 자기애이고,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모의 심리적 통제, 부의 과잉기대이

다. 여아의 관계적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기애이며, 부의 과잉기대, 모의 과잉기대는 여아의 관계적 공격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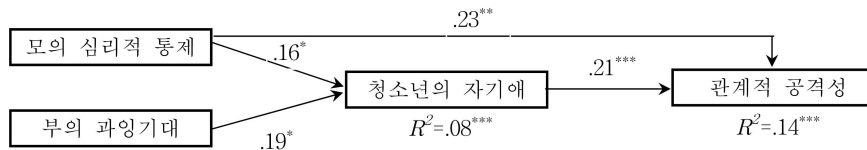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 과잉기대, 청소년의 자기애 및 공격성이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고 둘째,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인과적 관련성이 성별에 따라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공격성 유형에 따라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목적달성하기 위해 임의 추출한 678명의 남·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라

<표 5>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다중회귀분석 및 인과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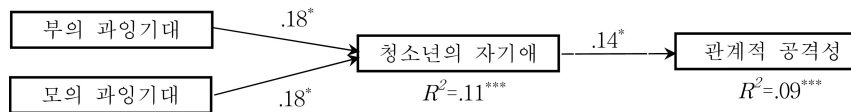
(N = 678)

성별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인과효과			R ²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남아	자기애	부의 심리적 통제	.04	-	-	-	.08***
		모의 심리적 통제	.16*	.16	-	.16	
		부의 과잉기대	.19*	.19	-	.19	
		모의 과잉기대	.05	-	-	-	
	관계적 공격성	부의 심리적 통제	.07	-	-	-	.14***
		모의 심리적 통제	.23**	.23	.03	.26	
		부의 과잉기대	.02	-	.04	.04	
		모의 과잉기대	.02	-	-	-	
여아	자기애	부의 심리적 통제	.02	-	-	-	.11***
		모의 심리적 통제	.02	-	-	-	
		부의 과잉기대	.18*	.18	-	.18	
		모의 과잉기대	.18*	.18	-	.18	
	관계적 공격성	부의 심리적 통제	.06	-	-	-	.09***
		모의 심리적 통제	.09	-	-	-	
		부의 과잉기대	.05	-	.03	.03	
		모의 과잉기대	.09	-	.03	.03	
		자기애	.14*	.14	-	.14	

*p < .05 **p < .01 ***p < .001



<그림 3> 남아의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관련변인들 간의 인과적 관련성



<그림 4> 여아의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관련변인들 간의 인과적 관련성

주된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아는 여아보다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과잉기대 및 어머니의 과잉기대를 더 크게 지각하였고, 외현적 공격성이 더 높았다.

남아가 여아보다 부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한다는 결과는 여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활동적인 남아에 대해 아버지가 통제를 더 가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또 남아가 여아보다 부·모의 과잉기대를 크게 지각한다는 결과는 전경진(2007), 조해미 외(2007)의 보고와 일치하는데 미국의 남·여 중학생이 학업 및 성취에 대한 부모의 기대를 동등하게 지각한다는 연구결과(Luthar & Becker, 2002)와 비교할 때 한국의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 및 남아선호 사상의 잔재를 시사하는 결과로 간주된다. 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부모의

양육행동을 긍정적으로 지각한다는 문경주와 오경자(2002)의 보고와도 맥을 같이 한다. 또 남아의 외현적 공격성이 여아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은 남아가 여아보다 신체적 공격성을 더 많이 보이고, 관계적 공격성에서는 성별차이가 없다고 한 심희옥(2003), 최보가와 임지영(1999), Olweus(1993), Rigby와 Slee(199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남아의 외현적 공격성이 여아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은 남아가 여아보다 신체적 우월성, 세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낀다고 밝힌 Rudolph와 Hammen (1999)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해석할 때, 또래 집단 내에서 권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욕구 및 집단 내에서의 강자에 대한 관심이 여아에 비해 남아가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외현적 공격성에서의 성차는 성역할 사회화가 그 원인일 수 있다. 최근 성 평등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긴 하나, 신체적 공격의 경우

남아에 대해서는 묵인되고 허용되는 반면 여아에 대해서는 과도한 행동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어 여아의 공격행동의 표출이 남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인과적 관련성은 청소년의 성별 및 공격성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외현적 공격성의 경우, 남아의 공격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청소년의 자기애였고 자기애에 매개되어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모의 심리적 통제 및 부의 과잉기대였다. 여아의 외현적 공격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청소년의 자기애였고 자기애에 매개되어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의 과잉기대였다. 다음으로 관계적 공격성의 경우 남아의 공격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청소년의 자기애 및 모의 심리적 통제였고, 자기애에 매개되어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모의 심리적 통제 및 부의 과잉기대였다. 여아의 관계적 공격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청소년의 자기애였고, 자기애에 매개되어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의 과잉기대였다.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변인들의 인과적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에서 주목되는 첫 번째 결과는, 부모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자기애에 매개되어 간접영향만을 미친다는 점이다. 남아의 관계적 공격성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의 직접영향이 나타난 결과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양상은 청소년의 성별 및 공격성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에 대해서 자기애의 영향이 큰데 비해 부모 양육행동의 영향은 미미하다는 신경애(2006)의 보고에 부가적 설명을 허용하는 결과이다. 즉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하여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자기애가 동일신상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자기애에 매개되어 간접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자기애가 높은 사람은 사회적 평가에 과도하게 의존적이라는 Rhodewal, Tragakis와 Hunh(2001)의 연구결과는, 자기애가 높은 청소년이 또래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주목받기 위한 수단으로 공격성을 표출할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변인들의 인과적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에서 주목되는 두 번째 결과는, 청소년의 자기애에 영향을 미치는 부 및 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부분적으로 다르다는 점이다. 여아의 자기애를 높이는 것은 아버지 및 어머니의 과잉기대였고 남아의 자기애를 높이는 것은 아버지의 과잉기대 및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였다. 아버지의 과잉기대가 남·여 청소년 모두의 자기애를 높인다는 본 연구 결과는 부모의 과잉기대가 자녀의 자기애에 영향을 미친다는 김계령(1997), 김은영(1996), 마혜정(2004)의 보고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여아의 자기애가 부·모 모두의 과잉

기대에 영향을 받는 것은 여성의 표현적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화의 결과라고 간주된다. 즉 관계를 증시하는 표현적 역할에 익숙한 여아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욕구가 남아보다 더 높을 것으로 간주되는데 Millon(1982)에 의하면 부모의 비현실적인 기대는 자녀의 자기 가치감을 부풀리고 이는 사회적 관계에서 과장된 자기상 즉 자기에로 연결된다.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자기애를 높인다는 본 분석결과는 Kernberg(1975)의 제시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다. Kernberg(1975)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이해와 공감을 받지 못한 아동은 자기애를 통해 정서적 결핍을 상쇄한다. 남아의 자기애에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는 심리적 통제가 아버지 보다 어머니에게서 나타나는 양육 특성(한정란 외, 2005)이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자녀와 공유하는 시간이 아버지 보다 더 많은 어머니가 더 자주 심리적 통제를 표현하기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여아의 자기애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데 비해 남아의 자기애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 영향을 받은 이유는 남성의 도구적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화의 결과라고 간주된다. 즉 자율성 및 독립성을 강조하는 도구적 역할에 익숙한 남아는 자신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 여아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결과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남아의 관계적 공격성에 간접적 영향 뿐 아니라 직접적 영향도 미친 것으로 나타난 부분이다. 이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남아가 우월성, 세력을 가지고자 하는 욕구를 억압하여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김민정과 도현심(2001)의 보고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격성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과잉기대와 청소년의 자기애의 인과적 관련성에서 외현적 공격성 및 관계적 공격성 간 두드러진 차이 없이 유사한 결과를 보인 것은 두 공격성 간 상호관련성이 크기 때문으로 간주된다. 선행 연구들(김선숙, 2007; 박혜경, 박성연, 2002; 이경희, 1998)이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 간 상관성이 높다고 보고한 것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즉 타인에게 신체적, 언어적 공격을 가하는 청소년은 의도적으로 관계를 손상시키는 행동도 빈번히 함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기관에서 공격적 청소년을 교육할 때 현재 드러난 공격성에만 제한하여 교육할 것이 아니라 잠재적 공격성도 염두에 두고 교육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상에서 논의된 결과에 따라 본 연구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남이는 여아보다 부·모의 과잉기대 및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하며 외현적 공격성이 높다.

둘째, 청소년의 공격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청

소년의 자기애이며, 남아의 관계적 공격성에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남아 여아 모두 자기애가 높을수록 외현적 공격성 및 관계적 공격성이 높으며 남아의 경우 어머니가 심리적 통제를 할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다.

셋째, 청소년의 자기애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의 영향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다르다. 즉 남자는 어머니가 심리적 통제를 할수록 그리고 아버지가 과잉기대를 할수록 자기애가 높고, 여자는 아버지 및 어머니가 과잉기대를 할수록 자기애가 높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표본이 지역 편파적이어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는 점과 둘째, 공격성을 자기 보고식으로 측정하여 자료의 타당성 확보가 미흡한 점을 들 수 있다. 추후연구에서 이러한 점이 보완되고 환경변인으로 부모 이외의 요인들이 고려되면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보다 정교한 설명이 가능하리라 본다.

본 연구의 의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과잉기대, 및 청소년의 자기애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경로를 규명하였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특히 부모의 영향을 분리 측정하여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남아 및 여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부 및 모의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밝힌 결과는 실용적 가치가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김주현(2008). 자기애와 자기개념 명확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계명(1997). 자기애적 성격과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민정, 도현심(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22(2), 149-166.
- 김선숙(2007).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연구회**, 32, 65-95.
- 김은영(1996). 대학생의 나르시시즘 성향과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현, 박경자(2006).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외적 요인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한국아동학회지**, 27(3), 149-168.
- 김혜영(1999).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이 심리 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류진영(1999). 아동의 부모 언어통제유형 지각과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마혜정(2004).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기애.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경주, 오경자(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임상**, 21(1), 29-43
- 박성연(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남아의 공격성간의 관계 및 세대간 전이. **아동학회지**, 23(5), 35-50.
- 박영미(1996).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정서 부적응 행동과의 상관.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혜경, 박성연(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8), 87-98.
- 서수균, 권석만(2002). 자존감 및 자기애 성향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807-824.
- 소미강(200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손석한, 노경선, 허모연, 정현옥, 이소희, 김세주(2001). 청소년기 문제행동과 부모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신경정신의학회지**, 40(4), 605-615.
- 신경애(2006). 고등학생의 자기애적 성격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집단 따돌림 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현균, 임지영(2003). 한국판 청소년 분노 평가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2), 449-462.
- 심희옥(2003). 아동의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경험과 교사 보고에 따른 문제행동과 유능성: 학년과 성별 비교. **한국아동학회지**, 24(2), 79-92.
- 이경희(1998). 관계지향 공격성 및 외현화 공격성과 심리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초등학교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세연(2008). 청소년의 자기애 및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숙, 이춘아(1998). 청소년의 공격성과 공격희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67-77.
- 이춘아(2001). 청소년의 또래 공격성과 피공격성.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 흥(2009). 청소년의 공격성 하위 유형에 따른 인지 및 정서 특성.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경진(2007). 학습자의 정의적 특성에 따른 성취압력과 학업 성취의 관계: 학업동기, 학습태도, 학업적 자기개념을

- 중심으로. 성산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남운(2001). 자기애적 성격검사의 요인구조와 아이젠크 성격차원 및 자존감과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221-237.
- 조혜미, 김성실, 임혜경, 한성현, 송미라, 손부순(2007). 부모의 성취압력이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한환경위생공학회지**, 22(1), 67-74.
- 최보가, 임지영(1999). 또래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초등학교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5), 111-121.
- 한정란, 이성호, 강승혜, 김미옥, 김은정, 김혜수 외(2005). 청소년의 자율성과 창의성 계발을 위한 부모교육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22), 1-171.
- 허묘연(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홍영미(2007). 대학생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및 기질이 외현적, 내재적 자기에 성향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arber, B. K.(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 Bushman, B., & Baumeister, R. F.(1998). Threatened egotism, narcissism, self-esteem and direct and displaced aggression: Does self-love or self-hate lead to viol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219-229.
- Crick, N. R., & Grotpeter, J. K.(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3), 710-722.
- Fukunishi, I., Nakagawa, T., Nakamura, H., Li, K., Hua, Z. Q., & Kratz, S.(1996). Relationship between type a behavior, narcissism, and closeness for college students in Japan, the United States of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sychological Reports*, 78(1), 939-944.
- Juang, Lerner, von Eye, & McKinney(1999) The goodness of fit of autonomy expectations between Asian American late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3(4),1023-1048.
- Kernberg, O.(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30(2), 332.
- Kernis, M. H., & Sun, C. R.(1994). Narcissism and reactions to interpersonal feedback.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8, 4-13.
- Luthar, S. S., & Becker, B. E.(2002). Privileged but pressured: A study of affluent youth. *Child Development*, 73, 1593-1610.
- Millon, T.(1982). On the nature of clinical health psychology. In T. Millon, C. Green, & R. Meagher (Eds.), *Handbook of clinical health psychology*. New York: Plenum Press.
- Olweus, D.(1993).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Cambridge, MA: Blackwell. ED 384 437.
- Papps, B. P., & O'Carroll, R. E.(1998). Extremes of self-esteem and narcissism and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and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24, 421-438.
- Perry, D. G., Kusel, S. J., & Perry, L. C.(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807-814.
- Rex, F., & Sarah, N.(1993). Maternal and parental parenting: Critical dimensions in adolescent functioning.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7(2). 213-221.
- Rhodewalt, F., Tragakis, M., & Hunh, S.(2001). Narcissism, social interaction and self-esteem. Manuscript in preparation, University of Utah.
- Rigby, K., & Slee, P. T.(1991). Bullying among Australian school children: reported behaviour and attitudes to victim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1, 615-627.
- Rudolph, K. D., & Hammen, C.(1999). Age and gender as determinants of stress exposure, generation, and reactions in youngsters: a transactional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70, 660-677.
- Tremblay, R.(2000).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r during childhood: What have we learned in the past century?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2), 129-141.

접 수 일 : 2010년 6월 30일

심사시작일 : 2010년 7월 6일

게재확정일 : 2010년 8월 3일